

#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 진안군 부귀면 일대·완주군 소양면 일대 문화재 지정구역 포함

지난 1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에서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심의 결과,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 부귀면 일원을 중심으로 완주군 소양면 일대까지 약 23만1556㎡가 문화재 지정구역에 포함됐다.

웅치전적지는 지난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당시에는 완주군에 한정됐던 구역이 향토사 연구자들의 지문을 받아 진안군의 부단한 노력으로 2021년 8월 진안군을 포함해 문화재 지정구역이 변경됐다.

진안군은 웅치전적지 성역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06년 학술대회, 2017년 정밀지표조사 및 종합 학술조사, 2018년 시굴조사, 2019년 발굴조사 등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민선 7기에 이어 현재까지 전촌성 진안군수는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 최초의 승전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진안군 웅치전적지 추정 지역

에 힘을 쏟았다.

또한 진안군은 임진왜란 이후 430여년 간 매년 추모제를 지내온 웅치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사단법인 웅치전적지 보존회에 추모제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2012년에는 웅치영령 추모사당인 창렬사를 건립해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전촌성 군수는 “웅치전적지가 사적

으로 지정된 만큼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더욱 대대적으로 펼쳐 웅치전투에서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도 나라사랑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에 따라 진안군민들의 환영이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초등학생들, 농공단지 입주기업 방문 체험

### 데이월 방문해 생산공정 지켜봐... 20·21일 풀무원다는·반햇소영농조합법인 방문

무주군 관내 초등학생들이 17일 무주읍 무주 제2농공단지 업체를 방문하고 제품 공정과정을 지켜봤다. 군은 무주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에게 무주의 입주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제품 생산공정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무주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20여명의 학생들은 무주읍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데이월(주)를 찾고 생산공정을 지켜보면서 기업 체험활동을 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데이월(주)는 딸기잼과 스무디, 모시차 선물세트, 요거



베시스 등을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초 학생들은 “무주의 회사에서 생산품들의 생산과정을 처음으로 지켜 봤다”며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은 분들의 맑과

열정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직접 보게 돼 무척 보람있다”고 즐거워했다.

군은 이외에도 오는 20일과 21일 중앙초 4학년 1반과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풀무원다는(주)와 반햇소영농조합법인의 생산공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풀무원 다는(주)은 액티비아와 아이러브 요거트 등 신선한 유제품을 생산하면서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햇소영농조합법인은 떡갈비를 비롯해 소시지, 한우사골곰탕, 햄류를 생산해 건강한 제품을 전국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나서

무주군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825건, 1천950만8천 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에 연납 후 폐차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등의 사

유로 대부분 발생한다. 군은 지난 11일 환급대상자 825명에게 지방세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와 정부24(gov.kr)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환급금 간단 조회가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가 17일 천천면 춘송리 등에서 진행 중인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찾아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했다.

## 최훈식 장수군수, 천천면 현장점검

###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 찾아

최훈식 장수군수가 17일 천천면 춘송리 등에서 진행 중인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찾아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했다.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해 천천면 행

복나눔터 건립, 장항 문화회관 조성, 하늘내 정류소 정비, 하늘내 물레길 정비와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천천면 행복나눔터는 천천면에 부족했던 주민활동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됐다.

최훈식 군수는 “천천면 행복나눔터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견실시공과 준공 후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장수군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3주간 장수사랑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유행 가맹점을 등록한 뒤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지원금(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단속은 군·민간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격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최훈식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장수사랑 상품권 제도'의 취지가 극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장수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시티투어 실시 여행업체 지원 나선다

진안군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지 홍보를 위해 12월까지 시티투어를 실시한 업체를 지원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과 요건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다. 관외 거주 관광객을 20명 이상 모집해 마이산 남부와 북부 각 1개소 이상 관광 및 식사 1식 또는 홍삼스와 체험과 식사 1식으로 일일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된다. 시티투어 종료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버스 1대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예일로 계획서, 일정표,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진안군 관광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티투어 종료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와 관광객 명단, 단체사진, 영수증 원본 등을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오는 19일 국립공원 지질명소(파쇄, 수심대 등)와 농촌마을, 국립공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주군 국가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 업무대행 사업의 일환으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운영하는 수탁사업으로 국립공원 인근의 지질공원(파쇄, 수심대, 나계동굴, 적상산 천일폭포)과 지역명소(태리고도원, 적상산 안국사 등)그리고 농촌마을을 연계한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이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지질과 연관된 지질, 자연, 문화, 역사자원을 아우르는 체험교육과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상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지질유산 보호를 보전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 효과를 만들어가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